제2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0. 10. 22(금), 16:00 ~ 19: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율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9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박상호, 박철균, 이재호, 이해진, 임원형, 임재수, 조중열 평의원(이상 9명)
- 불참 평의원 : 김관균, 김용호, 박윤규, 오동석 평의원(이상 4명)

4. 회의안건

- 안건1.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안건2. 2010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 안건3. 펀드 관련 학교 공동감사(안) 보고
- 안건4. 본교 약학대학 관련 보고

5. 개회선언

의장 박영무 : 회의성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근태 : 제26차 대학평의원회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분 중에서 4분이 불참을 하셨고, 현재 총 9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 박영무 : 회의 성원이 됨에 따라 제2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4가지 안건이 있는데, 학칙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펀드 관련 학교 공동감사(안) 보고, 약학대학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좋으니까 회의안건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학칙심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자문을 하고 여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처장님 일정 때문에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간사 김근태 :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순서가 정해지면 순서에 따라서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0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과 본교 약학대학 관련 보고는 기획처장님께서 발표하십니까?

간사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두 개를 붙여서 하면 되겠네요.

< 간서명 란 >

의 장 [signature]

간사 김근태 : 예, 그럼 공동펀드감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두 개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합니까?

의장 박영무 : 두 번째, 네 번째죠, 그러면 약학대학을 펀드 앞으로 당기면 되겠네요.

평의원 임원형 : 회의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의장 박영무 : 그러면 임원형 평의원의 시간을 고려하여 펀드를 제일 먼저 하고 학칙, 추경, 약학대학 관련 보고 이렇게 하죠. 펀드 관련해서 이재호 의원께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회의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인데요, 보시는 대로 13, 14쪽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특별감사를 이렇게 시행하자고 안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내용은 평의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내용 정리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8월 30일에 회신을 한 공문이 15, 16쪽에 있습니다. 평의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의견을 밝힌 내용이 되겠고, 실제로 이 내용이 있기까지 제가 여러 번 기획처장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16쪽에 보시면 감사의 목적 및 전제라는 것을 대학본부에서 제시했습니다. 14쪽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얘기는 학교 측에서는 내부감사로 종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 회의에서 우리가 이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나눴었고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를 시행하고 나서 대학평의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후속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임을 학교 측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전제를 달고 이 부분은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타결이 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가 감사의 범위인데 평의원회에서 보낸 것은 감사를 하다보면 금융기관이나 재단이 갖고 있는 자료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사위원들이 요청하면 학교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는데 감사위원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른 기관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다만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는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만 답변서와 같이 평의원회의 단서 사항을 삭제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커다란 이견이 있었고 여러 차례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며칠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하자고 제안한

< 간서명 란 >

의 장

이 안으로 해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많이 주변에서 학교에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동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가까워지던 차에 외부감사가 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에 의하면 11월 23~ 25일까지 사학진흥재단에서 감사를 오기로 되어 있고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그리고 사학진흥재단 단독으로 올지 아니면 교과부와 같이 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감사가 내려오는 것은 명확히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본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외부감사에 잘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평의원회에서 요청했던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시행되고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논의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에 그런 대학본부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펀드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던 것은 학교회계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펀드 투자결정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실체적으로 파악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들에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와 사학진흥재단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걸로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가 감사 대비 준비를 해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밝혀지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보고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평의원 임원형 :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감사가 온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단독으로 오는 것과 사학진흥재단과 공동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으며, 혹시 예전에 입학비리 관련해서 감사받았을 때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펀드에 문제가 있을 때 교과부에서 징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 문제는 이재호 평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과부하고 사학진흥재단이 같이 오게 될지 사학진흥재단만 오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분위기로는 교과부에서 오면 좀 더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니죠?

평의원 이재호 : 제가 듣기로는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저희가 몇 개월에 거쳐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랬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던 이유가 의장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주셨는데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로잡자는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법상에 있어서 파장효과에 있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원칙에는 동의하되, 파장효과와 이런 것을 아직 진행도 안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느라고 의견들이 막 오고갑니다. 이미 몇몇 신문에 이것이 오픈이 다 되고 외부에서 감사를 나오고 이러는 내용이면 아까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내에 한해서 하자 이런 관점이 됐다고 하면 이미 바깥에서 신문에 공표가 되고 바깥에서 감사를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대학평의원회에서 요구됐던 내용들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평의원회에서 이것을 얘기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처리방안에 대한 교과부 입장이 있을 거고, 사학진흥재단 입장이 있을 거고, 우리 학교 입장이 있을 거니까, 대학평의원회 입장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물론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 이렇게 하자는 협의를 해봤자 의견만 계속 개진이 될 것이고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제 의견은 그때까지 논의를 유보하는게 어떤가 그 얘기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과연 평의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날 며칠을 이건에 대해서 해야 할 정도로 아주대학교 현안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없는가? 그런 문제들도 고려를 해서 평의원분들과 의장님께서는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시간에 대한 비중과 요런 것을 잘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보건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의장님이 제안하신대로 논의를 보류하는, 그리고 이해진 의원 말씀하신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설왕설래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저도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모든 공동회의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대학평의원회는 학교를 대표하는 회의체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목적이라고 하면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이 우리대학의 발전이고 그래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학평의원회에서 내부 자료가 외부에 공표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확정이 되기 전에 공표가 되는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부감사까지 와서 진행되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검토 중인 자료가 공표가 되고 그 자체가 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간다면 구성원 전체가 자제하는 쪽으로, 진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감사를 통해서 아주대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행정 제재를 받든, 아니면 관련된 사안에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든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이 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속단을 해서 우리학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미리 자료가 유포되고, 언론에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정말 걱정하는 입장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는 진중하게 하자는 차라리 구성원들에게 그런 공고를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미래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박철균 : 과거를 보고 미래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박철균 : 언론에 유포된 상황에 대해서...

평의원 이재호 : 언론에 유포된 자료가 사실은 우리 학교 내 커뮤니티에 이미 오픈된 자료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평의원 박철균 : 네,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 자료의 진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혹시 아십니까?

평의원 박철균 : 계속 검토 중이었죠. 여러 사람이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평의원 이재호 : 사실은 그 보고서 작성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내부에 공표하기 전에 대학본부에 보고서를 보내고 그 보고서 내용 중에 팩트가 잘못 되었거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것이 맞다면 보고서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대학본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 학내구성원들에게 발표를 하겠다 그 자리에 와서 반론을 해달라, 대학본부는 역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런저런 해석상의 문제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회보고서의 내용이 계속 논란중에 있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심지어 평의원회에서도 채택한 바 있죠. 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

고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평의원 박철균 :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것을 우리의 공식안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들은 거죠.
평의원 이재호 : 채택했죠.
평의원 박철균 : 저희가 보고를 들은 거죠. 교수회 의견사항이 세 분이 고생해서 만든 것을 보고를 들은 거죠.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 기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채택을 했는데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결과 22차 평의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동 차수 회의록 27쪽 참조)
평의원 이해진 :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재호 평의원께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 일원이었다, 그 분이 평의원회 들어와서 있으면 계속 내용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론하시는 거고 하니까. 저는 박철균 평의원이 얘기한 제안에 대해서 평의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이재호 의원 따지듯이 그런 것 하기 전에 평의원회 입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미리 자료가 나오고 이런 것은 가능한 자제될 수 있겠다는 의견서는 평의원회에서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자료가 나갔다 안 나갔다 뭣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회 입장에서 가능한 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자제를 해달라는 의견서, 성명서는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임원형 : 저는 그런 성명서일수록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박철균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내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총학생회, 총동문회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것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자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발전하니까 이런 것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우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결과를 안 기다렸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밖에 나가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서 자료가 밖에 나갔다고 생각 하고요. 교과부에 감사가 들어와서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진 게 아니라 문제

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교과부 감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본부에서 말하듯이 본부 감사안과 평의원회 감사(안)이 의견이 안 맞아서 내부감사는 수용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잘못은 분명히 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은 접어두고 우리 얘기하지 말자, 자제하자, 이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본부라든지 총동문회라든지 박철균 평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평의원 박철균 : 정리를 다시하자면 제가 평의원회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학내문제는 학내에서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한 이유는 이 사안이 언론에 유포되면서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흘러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대입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학내에서 풀리지 않고 외부로 나갔을 때 상황크기에 상관없이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내부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23일에 외부감사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학내에서는 외부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면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가능하면 진중하게 우리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평의원 임원형 : 이번에 국립대학교 16개교가 등록금 가지고 골프장 지었다고 합니다. 그 국립대학교들의 수능점수 떨어지겠죠.

평의원 박철균 : 우리학교 얘기만 하죠.

평의원 임원형 : 학교 입학점수가 떨어지거나 기부금 줄어들거나 그런 피해가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주상아파트가 물이 새는 거, 금이 가 있는 거, 흔들리는 거를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입생들이 이 펀드문제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논리를 비약시키지 말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찾아보되 교내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문제를 덮어두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교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잖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박철균 : 계속 해왔습니다. 공문을 주고 받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 를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평의원회에서 안을 마련했고 거기 있어서 아까 얘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본부가 받지를 않고 우리 평의원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지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철균 평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기에 비록 외부감사 요청을 하자는 결의를 우리 평의원회에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알려진 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동안 비슷한 입장에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견지에서 11월 23일 외부감사가 오니까 그때까지 논의를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고 혹시 그런 문제가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라고 걱정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자는 평의회 수준의 의사표명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비록 조금 온도차는 있을지 몰라도 같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해서...

평의원 박철균 : 비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왕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니까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진중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결론이 나기 전에 내부에서 문제를 밖으로 비약시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상황이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볼 때 그런 움직임이나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외부로 전달될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해진 : 미묘한 시기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평이한 얘기가 날카롭게 들릴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임원형 평의원이 성명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포괄적인 성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가 이렇게 나가면 한없는 얘기고 우리 처해있는 상황에서 꼭 펀드 건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내부 구성원보다 먼저 알아가지고 거꾸로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호의원님이 교수시고 저는 동문이고 임원형 평의원은 학생이고 이런 자기의 소속감에서보다도 평의원회 전체 구성원에서 외부감사도 나오고 한다니까 서로 다시 한 번 우리 내부를 생각해 보고 외부에서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이런 기회를 갖자는 성명서나 의견서를 내자는 의견이지, 꼭 이것에 대해서 이재호 교수님 혹시 기존에 이 건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던가요?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대학평의원회도 그렇고 이번 평의원회도 그렇고 평의원회에서 성명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자신조차도 4년을 동문회장하면서 성명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평의원회는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회의체이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의젓한, 그러한 정도의 중심을 잡자는 정도의 포괄적인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만장일치로 외부감사를 요청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바로 이 평의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 성명이나 이런 형태로 구성원 내부에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파생된 일에 대해 평의원 수준의 의견을 내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성원에 따라 이것에 대한 견해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치부가 알려진 게 대단히 큰 문제이고 학교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학교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평의원회 성명을 내자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이 평의원회 회의록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외부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각 단체에서 나와 있는 평의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큰 걱정 안하시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시죠.

평의원 조중열 :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 외부감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지금 얘기한다고 결론이 날 것도 아니니까 이것으로 이야기를 끝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이왕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평의원회에서 자제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중립적인 평의원회 의견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재호 의원은 다른 의견을 주셨으니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께 가부라도 묻고 지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것도 만장일치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의결을 하려면 의결정족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당국이 정확한 감사준비를 해서 학교구성원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실체적인 내용들을 다 밝히고 그 외에 이런 저런 염려해서 상상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감사를 들어오는 것이니까 학교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염려하느냐하면 국정감사가 나온다고 발표되고 나서 학교에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 과연 이런 사람이 감사를 제대로 받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해진 평의원이나 박철균 평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학교당국에 제대로 감사준비를 해라라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둘 다 수용해도 되겠군요.

의장 박영무 : 감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정확한 감사를 위한 자료준비가 필요하죠.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께서는 이 감사에 국한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국한된 게 아니라 소위 지방소식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 말씀드린 건데, 감사 건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학교 쪽에 의견을 내고 전체 구성원들에게는 감사 결론이 나기까지는 자제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가도 되겠네요.

부의장 주동표 : 구성원들이 어떤 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취지를 어떤 점을 이야기하자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명서를 내고자 한다면 중심 되는 내용이 있어야 할 텐데요.

평의원 이해진 : 신문에 난 내용을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겠구나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었으면 이럴 텐데, 신문에 나고 나서 내용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혹은 평범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것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공지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가 박스처리까지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평의원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언짢지 않느냐 서로 자제를 하자는 성명서를 내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나 이재호 교수님께서는 펀드 건으로 국한을 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을 믹싱을 해서 학교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똑바로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평의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바깥으로 엉뚱한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건 문제가 다르죠. 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인 학교는 피감사 대상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은 언로를 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감사 쪽에 대해서 말씀 하시니까 믹싱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의장님 지적하시니까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네요. 저

< 간서명 란 >

의 장 박 영 무

는 분명히 감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건에 대해서도 우리학교가 소위 대중들이 보는 그런 매체에 그런 내용으로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어떤 문제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과연 어떤 단체가 성숙한 단체일 것인가? 내부에서 자정할 수 있는 단체가 제일 성숙한 단체일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교정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교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교정이 안 되는데도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가든지 교정이 되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행해지던지.

평의원 이해진 : 교수님께서는 우리 아주대학교는 교정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건에 있어서 평의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외부 감사를 결의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내부적으로 해결해보자, 그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고 그 결의가 있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노력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분들도 다 학교 구성원이고 이재호 평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자정이 필요한 구성원들로 생각이 돼요. 또 학교 구성원들이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수만, 학생만, 동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성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쪽의 의견으로 끌고 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치 우리 쪽 내용은 정당하고 상대방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질 끌린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의원 이재호 : 아니죠.

평의원 이해진 : 서로 상대방 입장이 있는 거고 그것을 계속 좁혀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상대방이라고 하시죠, 대학본부 측에서는 우리하고는 맞춰나갈 생각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답답했을 거예요. 거꾸로 저들은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더 답답하겠죠. 일반적인 조직의사결정론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의견들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표결로 처리로 하시는 것을 건의합니다.

평의원 임원형 : 만약에 이해진 의원께서 성명서 채택(안)에 대해서 의결을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한다면 그 성명서 말고 다른 성명서도 같이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구성원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은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부는, 저는 본부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언론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2009년 처음 제기했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본부에 잘못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감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번에 외부감사가 시작 되는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외부감사를 확실하게 잘 해달라 이렇게 가는 게 현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을 성명서로 나갈 내용도 아니고 이 회의록이 공개되니까 모든 구성원이 이 회의록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면, 이 내용은 충분히 토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의장님, 저는 표결 한 번 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회의록을 보는 것으로 갈음하자는 얘기는 회의록은 늘 오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의견이 진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 아니면 적절한 표현의 의견서를, 성명서란 표현이 아니더라도 평의원회에서 한 번 공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표결에 의해서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의장 박영무 : 표결하고자 하는 안이 성립되는가 묻겠습니다. 표결하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성명서 발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임원형 평의원 이석)

평의원 조중열 : 지금 의장님 물어보시는 게 표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의장 박영무 : 그렇죠.

평의원 조중열 : 저는 평의원 한 분이라도 표결을 요청했으니까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진 의원 혼자 요청했더라도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무 : 그 안이 성립해야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임재수 : 표결해야 되는 내용을 의장님 한 번 정리해주세요.

평의원 조중열 : 표결 기회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표결 원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임원형 평의원 참석)

평의원 이재호 : 사실 저도 표결 없이 합의되는 것이 평의원회 성격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계속해서 표결을 원하시면 해야겠죠.

의장 박영무 : 김근태 간사 혹시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간사 김근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의사진행규정상 그런 것은 없다?

간사 김근태 :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장 박영무 : 그렇다면 일반적인 것을 따라야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견을 정리하시고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하겠지요.

의장 박영무 : 네, 안을 정리해서 제시해주시죠. 성안이 되어야 표결하니까요.

평의원 이해진 : 안의 성안에 대해서 그 안이 성안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해서 표결을 한 후에 그 표결이 된 안에 대해서 다시 가(可)냐 부(否)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이 제가 이런 내용의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그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젓한 평의원회의 이 시점의 민감한 시점일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평의원회가 없었잖아요 외부에 공표가 되고 특히 아주대학이 강조 되어서 나오고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꼭 이 건을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을 빌려서 외부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인 혹은 단정적이지 않은 의견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유의하자 주의하자는 의견서나 성명서를 대학평의원회 이름으로 발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박영무 의장께서 꼭 문안을 지금 정리해서 발표해라 그것을 가부(可否)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문안에 대한 내용은 가(可)가 된다면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면 그때 다시 수정하시죠.

의장 박영무 :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평의원 조중열 : 네, 표결하시죠.

의장 박영무 : 제청이 들어온 것으로 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안에 찬성하십니까?

평의원 임재수 : 그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해진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취지가 이번에 국감자료에 보면 상당히 자세한 내막들이 나와 있는데 국감자료는 학교에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준 자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은 겁니까? 학교에서는 준 게 없습니까?

평의원 박상호 :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와 있고요.

평의원 임재수 : 그런 내용들이 이해진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

요.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의원 이재호 : 학내구성원 모두에게 오픈된 보고서에는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일보에서 그 액수며, 내용이며 박스화해서 기사화했습니다. 그 액수의 출처는 명확합니다. 교수회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는 학내 구성원에게 모두 오픈된 자료입니다.

평의원 조중열 : 찬반토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투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르고 그 다음 내용을 논의를 하죠.

의장 박영무 : 다시 묻겠습니다. 이해진 의원이 그런 뜻의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하셨는데 발표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3명)	임재수, 이해진, 박철균 평의원
반대(6명)	박영무 의장, 주동표 부의장, 박상호, 이재호, 임원형, 조중열 평의원

의장 박영무 : 세 분 찬성입니다. 폐기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학칙개정안입니다.

간사 김근태 :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 내용은 일반대학원에 "약학계열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일반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에 "삼성탈레스(주)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근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협의회 내용 삭제, 산업대학원 "에너지학과" 신설, 경영대학원 유사 전공의 통합(재무관리, 금융보험 전공→금융전공, 회계학, 전문회계 전공→회계학 전공, 경영일반, 전략경영 전공→경영전략 전공) 및 최근 수년간 수요가 없는 전공(글로벌MBA, 테크노MBA 전공) 폐지, 2010-2학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정원 표기(2010-1학기와 동일)입니다. 설명 드린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조중열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김근태 : 6페이지 보시면 등록금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등록금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학생대표 3인, 학교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조중열 : 등록금심의위원회로 되면 구성원이 바뀌게 되겠네요?

간사 김근태 : 굉장히 다양하죠.

평의원 조중열 : 지금 여기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몇 명에 누가 들어가고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간사 김근태 :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세부사항은 어디서 정하나요?
간사 김근태 : 고등교육법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평의원 임원형 : 시행령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시행령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학교에서 누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결정을 누가 하나요? 대학평의원회 심의안인가요?
간사 김근태 : 아닙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은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나머지 프로세스는 학칙과 동일하지만 최종결정은 교무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평의원 임원형 : 평의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세부규칙이 나왔을 때는 더 이상 평의원회에서는 논의가 안 되겠네요.
간사 김근태 : 이것은 학칙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박영무 :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고등교육법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죠? 시행령은 정부의 사항인데 만약 늦어져서 다음 학기 등록금협의 때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것을 지금 폐지해버리면 등록금 협의 과정이 없어질 텐데. 학생대표 평의원 의견은 어떤가요?
평의원 임원형 : 시행령이 나온 다음, 학교에서 세부 규칙을 정한 다음에 평의원회에서 학칙을 통과시키는 게 대학평의원회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부터 통과를 시키고 세부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의 문구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부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박영무 : 그게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합니다. 시행령이 안 나오면 시행이 안 되는 건데, 시행령도 없는데 학칙부터 덜컥 바꿔버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등록금 협의 없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교무회의에서 토론을 했는지...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학칙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진 평의원 참석)
평의원 박철균 : 고등교육법 11조 전문이 없어서 상부규칙에 분명히 위배되면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먼저 적용이 되는데, 11조가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사 김근태 : 고등교육법 11조 전문은 별첨자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평의원 박철균 : 설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네요.

평의원 이재호 : 학교에서는 상위법에 맞춰서 바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현재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등록금 협의회는 없어진 채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근거가 없는 채로 한동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학칙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행령이 나온 이후에 학칙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조증열 : 3명, 3명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개정된 법에 틀린 것도 아니네요. 학생과 관련전문가, 그리고 교직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11조2에 딱 맞는 거 아닌가요?

평의원 임원형 : 딱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구성도 중요하지만, 보시다시피 해당학년도 등록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는...

평의원 조증열 : 그럼 개정된 법이 더 좋다는 것이네요?

평의원 임원형 : 더 좋은데, 개정안에 보시면 2010년 1월 22일 개정이 된 것인데, 2010학년도 등록금 협의도 이것에 따라서 된 게 아니에요,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행령이 없으면 이것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여기 폐지조항이 있으니까요.

평의원 조증열 : 이름만 고쳐도 되는데. 어차피 다음에 올라오면 또 이게 뭐더라 하게 되니까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도 시간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평의원 임원형 : 나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회를 처음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당시 총학생회장이 40일 단식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3인, 3인 동수였고 결론이 안 나면 협의회에서 통과하고 그 상위인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협의회가 유야무야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이익이 남는 위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의원 조증열 :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기존의 구성대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평의원 임원형 : 그게 폐지가 되니까 문제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의장 박영무 : 지금 학칙 변경을 결의하면 등록금 협의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모두 동의 하는 것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나오기까지는 결정을 유보하고 시행령이 나오면 그때 이 건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 건과 직접 관련은 아니고 상당히 포괄적인 건데요, 16조의2를 보면 다만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 학칙도 우리 재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정 체계로 보면 학칙도 다른 규칙과 동격이기 때문에 학칙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결정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여기 세부사항은 다른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의원 박철균 : 학칙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단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적기 시작하면 학칙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을 하는 관례가 계속 지켜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과부가 요구하는 사항은 위임을 했으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부 규칙을 명확히 받으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해놓고 봤더니 명확한 게 없을 때는 안 된다는 공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위임을 한 규칙이 어느 정도 정밀하게 규정이 되는 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 자체를 막아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손을 봐야 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도 박철균 평의원님 말씀하시는 해석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해석이 전반적인 규정체계에 관한 해석이라면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단의 해석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규정체계하고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다른 부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쪽을 보시면 정원에 대한 2010년 2학기 동수로 인정하는 현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2학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 학칙 개정이 늦은 것 아닌지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정원결정 부분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칙개정이 되어야하지 않나 합니다.

(임원형 의원 이석)

평의원 이재호 :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 김근태 : 단위부서에서부터 늦어지고 있는게 이와 관련하여 일정준수 공문을 다시 한 번 발송할 예정입니다. 학칙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 특히나 신설하고 관련된 부분, 학생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제·개정 공문이 와야 하고 학칙이 직제하고 연관된 부분일 경우는 더 일찍 신청·접수되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가 항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획팀에서도 수시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크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거쳐야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의 절대 준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의장 박영무 : 이게 반복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간사 김근태 :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일정 준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형 평의원 참석)

평의원 박철균 : 숫자가 변동 없이 올라오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논의 시점을 몇 달 당기면 되겠네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청합시다. 하나 하나 봅시다. 약학계열 약학과 석사과정 신설에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필요한 서류들은 다 갖추었고요. 두 번째 일반대학원 삼성탈레스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신설(안)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것도 이전에 봤던 예와 같은 조건인거죠, 특별히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간사 김근태 : 네, 없습니다.

의장 박영무 :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 관계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하고, 산업대학원 에너지학과 신설은 서류가 다 갖췄고, 그 다음 경영대학원 유사전공 통합 및 최근 수요가 없는 전공 폐지, 회의록 등 자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정원표기 관련해서 박철균 평의원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11조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등록금협의회 내용 삭제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바,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학칙과 규칙을 제정해서 심의하는 게 낫겠다, 나머지 안들은 본부에서 제안한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원 동의)

네,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의장 박영무 :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약학대학 관련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처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0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8억 원에 대해 설명하다.

평의원 이재호 : 공사 준공 예정이 1월말로 당겨진 거죠? 잔금은 통상적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급을 합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기성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완료하면 기금청구를 하는데, 그게 준공검사 완료되면서 15일 이내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예상하시는 게 준공검사가 말하자면 1월말 2월초 사이라는 거죠?
예산팀장 조경숙 : 네.
평의원 이재호 : 전에 저희한테 8월 5일에 주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종합관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지급예정인 액수가 37억 원이었는데, 여기 보면 38억 원이네요.
예산팀장 조경숙 :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공간 칸막이 공사 등이 있어서 원래 37억 원 플러스 여유부분으로 1억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공사로 최종 공사하면서 최종 확정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렇군요. 외 2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종합설계동하고 대형지반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네, 맞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혹시 미리 지급하면 선지급 할인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3월부터 쓰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2달 당기면 경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평의원 임원형 : 건축기금은 얼마 정도 남는 건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건축기금내용이 종합관으로 했던 것이고, 다 소진됩니다.
예산팀장 조경숙 : 건축기금은 1억 원 정도 남는데 다른 형태로...
평의원 임원형 : 올해 건축기금 적립은 얼마나 하게 되나요?
예산팀장 조경숙 : 올해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30~40억 원씩 건축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종합관 계획할 때 올해까지 있는 것 다 쓰면서 설계가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박영무

의장 박영무 :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종합관하고 몇 가지 건축 관계해서 세 차례 계속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언젠가는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처장 임재익 : 그것은 사실 총무처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영무 : 기억해두셨다가 건축과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평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경(안)은 원안대로 자문을 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약학대학 관련 실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당초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50명을 주기로 하였으나 20명만 주고 실사결과에 따라서 10명을 추가로 주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실사를 받아 입학정원 10명을 더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약학대학 신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약학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약학대학 유치 경쟁력, 교육목표(6(2+4)년제 교육과정, 임상약학), 특성화 전략(임상기반교육 체제를 통한 신가치 창출형 약사 양성), 교수 충원계획(편제 완성 년도까지 전임교원 20명 임용 예정), 교육/연구시설 확보계획(1단계 약학관 신축(지하1층, 지상 3층, 2012년 2월 준공, 2단계 약학관 증축(지상4~6층)), 교육/기자재 및 시설 확보 재정계획(2010~2014년까지 총 9,146백만원 소요 예정),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하다.

의장 박영무 : 기획처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재호 : 실제 준공 예정은 2011년 2월이 아니겠죠?

기획처장 임재익 : 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2012년 1월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1년 동안은 종합관을 쓰게 됩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강의는 종합관, 실험실습은 토목실험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의장 박영무 : 지금 지도 축척이 맞아야 될 텐데, 지금 정확한 위치가 맞습니까?

간사 김근태 : 지금 종합관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착공은 언제 하는 거죠?

간사 김근태 : 가착공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실사 올 때 보여주게 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삽 파는 것은 내년 5월 정도...

간사 김근태 : 삽 파는 것은 내년 4월정도가 되고, 2012년 1월 완공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대체실습공간은 종합설계동에 34평 규모로 약학 학부실습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재호 : 20명이죠?

기획처장 임재익 : 네, 실습만 하면 되니까요. 강의는 종합관에서 하게 됩니다. 본격실습은 약대는 주로 3~4학년에 하게 되더군요.

평의원 박철균 : 인건비는 예산에서 빠져있는 건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네, 빠지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늦춰가면서 예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 뽑고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으로 대략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형 평의원 퇴실)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예산 잡힌 게 2010학년도에 공사비 14억 원, 교육용 기자재 예산은 2010년도에는 안 잡힌 거죠?

예산팀장 조경숙 : 네, 예측을 5억 원 세워놓은 것은 아직 추경을 못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지금 그 리스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대에서도 봐주고 계시구요, 그러다보니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해외에서도 학생을 받나요?

기획처장 임재익 :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입학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입학처에서 지금 약학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이재호 교수님, 요즘 한양방 통합검진에 통합치료, 여기 지금 우리가 임상약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면, 약학대학에서는 한약에 대한 그런 임상은 포함 안 시키는 건가요?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알기로는 한약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약사라고 하는 개념은 의사가 처방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옆에서 의사가 처방한 것이 약물학적으로 적절한지 금기시되는 약물들이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팜디(Pharm D)제도가 활성화된 경우는 환자에게 약 처방하는 것에 있어서 팜디(Pharm D) 사인과 의사 사인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는 팜디(Pharm D)가 조언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의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평의원 이해진 : 약학대학 비전이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약학대학, 저건 다른 약학대학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평의원 이재호 : 아마 임상약학이라는 것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임상약학, 산업약학, 연구약학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

냐 하면 임상약학이라는 거죠.

평의원 이해진 :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양의학자들이 한의학도 연구를 해서 같이 처방을 한다던가 하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약학대학에 한의학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한약과, 양약과, 한의학과, 양의학의 분쟁이 심해서 그렇게 쉽게 이것도 하자 이게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임상약학 저것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결정하기까지 진통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로 팜디(Pharm D)와 의사하고 이런 관계가...

평의원 이재호 : 실제로 의사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보면 내가 진료하고 처방하는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자신의 판단을 도울 스탭을 하나 더 받는 것이죠.

평의원 박철균 :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평의원 이재호 :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fixed plan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종합관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을 하면서 감당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건축만 해도 내년에 47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처장 임재익 : 내후년까지 2년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준공 15일 이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처장 임재익 :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지만 조절을 해봐야죠. 사실은 건물 비용은 2년에 걸쳐서 예산절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건물 값이 큰데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는 것 외에는 큰 방법이 없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예산팀장, 우리가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융자는 가능한데, 융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융자는 차선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빚이니까요.

평의원 이재호 : 재단전입의 여지가 있을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사회에서도 자세히 발표 했을 텐데 이사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처장 임재익 : 기본적인 플랜은 이거 외에 제약실습공장 만들고 관련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학교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긴축으로 47억 원을 만들어내려면?

기획처장 임재익 : 1년에 반 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사업들은 한 2년은 참고 줄여보려고 하고, 그래도 큰 핵심은 안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 장학금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평의원 이재호 : 새로 출발하는 약대에 충분한 지원이나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지원과 투자가 나머지 구성원들이 다 내핍해서 얻은 결과여야 한다고 하면 좋은 출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가능한 한 예산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을 각 단과대학의 직접경비에서 줄이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단과대학에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게 70% 정도는 다시 단과대학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30% 정도를 내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교직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운영비입니다. 가능한 한 본부에서 절약을 해서 단과대학에서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평의원 박철균 :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 약대가 운영되는 구조를 보면 의료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고 효과도 의료원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약대 설립단계부터 펀드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 일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물론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으나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평의원 박철균 : 4년 전에 캠퍼스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실제 종합관 부분에 바이오센터를 짓기로 얘기가 됐었고, 그때 의료원장님, 의료원 관계자들과 학교 기획팀과 얘기가 된 것이 바이오센터는 우리 자연계열 부분하고 의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센터로 보고 투자도 공동으로 하자는 협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바이오센터의 한 형태가 약학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의료원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무 : 이사회 기록을 보면 그동안은 적자를 보다가 재단이 올해는 약 30억 원 순이익이 났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재단에서는 이 돈의 사용 계획과 연관하여 의사 표명한 것이 없나요?

기획처장 임재익 : 네, 현재는...

의장 박영무 : 우리 대학평의원회에서 그것을 촉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약학대학이 신설되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지만 재단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노력은 필요하겠다.

평의원 이재호 : 저 건물을 짓게 되면 재단에 귀속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처장 임재익 : 약학대학 입학정원이 5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학교발전을 위하여 유치하고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교에서도 20명으로 손해나는 것을 몰라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하고 약대를 성장시키는 게 아주대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기획처장 임재익 : 저도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재단도 지금은 적자겠지만, 대학이 처음부터 흑자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투자기간이 필요한 거고... 특히 재단의 사정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2009학년도부터 한해 30억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유목적사업 적립한다고 보고하는 것을 회의록에서 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본거라면 재단은 한해 30억 원~40억 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생겼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발전,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단이 분담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누차 결산 평의원회 때마다 지적을 했지만 우리 재단이 법정적립금, 토지매입금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획처장 임재익 : 재단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혜진 : 시간도 많이 됐는데 정리하시죠.

기획처장 임재익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SCI의 30%가 서울대 약대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희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의장 박영무 :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할 텐데 재단에도 그에 적정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 합시다. 많은 교수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료를 공개주

< 간서명 란 >

의 장 [illegible]

시죠. 실행계획이라고.

기획처장 임재익 : 공개적인 자료배포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예산절감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약학대학이 잘 되도록 노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어차피 예산도 학교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야하니까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곤란하니까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획처장 임재익 : 알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까지는... 일단 실사에서 정원 10명부터 시급합니다. 2011학년도 예산 짜면서 학장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무 : 구성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2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10년 10월 22일

의 장 박 영 무 (서명)

부의장 주 동 표 (서명)

평의원 조 중 열 (서명)

평의원 이 재 호 (서명)

평의원 오 동 석 (서명)

평의원 박 철 균 (서명)

평의원 임 재 수 (서명)

평의원 김 용 호 (서명)

평의원 임 원 형 (서명)

평의원 이 해 진 (서명)

평의원 김 관 균 (서명)

평의원 박 윤 규 (서명)

평의원 박 상 호 (서명)

기 록 진 성 호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